

주요용어 : 간호윤리, 돌봄의 윤리, 미학

돌봄의 윤리를 위한 미감적 – 윤리적 패러다임

공 병 혜*

I. 서 론(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논문은 돌봄(care)의 개념이 지난 고유한 도덕적 성격을 탐구함으로써 간호의 본질에 부합하는 돌봄의 윤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지금까지 간호학자들은 ‘간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돌봄에 대한 어원을 탐색하고 내용의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의 본질로서의 돌봄에 대한 이해는 특히 간호학적 지식체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천적인 간호 행위로서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다. 왜냐하면 간호학적 고유한 특성은 근본적으로 돌봄이라는 실천적인 행위가 함축하고 도덕적 성격과 목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행위가 지향하고 있는 도덕적 성격과 목표는 오로지 간호학적 지식체가 함축하고 있는 돌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규정을 통해서 독자적인 윤리적 탐색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된 간호윤리는 간호행위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론 규범윤리학에서 탐구된 전통적인 윤리이론이나 윤리원칙을 간호행위에 연역적으로 적용시키는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로서 간주되어왔다. 또한 의료윤리와 별 차별 없이 전통적 윤리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생의 윤리의 기본원칙과 규칙들로 간호윤리가 구성되어져 간호행위에 대한 도

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Beauchamp, 1994; Hong, Yeom & Han, 1994; Kim, Son & Kim, 2000). 즉 전통적인 윤리이론인 칸트의 의무주의와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그리고 비참파 칠드레스에 의한 생의 윤리의 기본원칙들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이 간호윤리의 기본원칙과 규칙으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이론과 윤리원칙에 기초하여 간호 윤리가 구성되고 간호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돌봄이라는 간호행위 자체가 지난 고유한 도덕적 성격은 무시되거나 혹은 그 기본 이론과 원칙에 종속되는 가치체계로서 머물러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간호윤리는 오로지 간호행위가 지난 고유한 도덕적 가치에 기초하여 그 틀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분야의 윤리와 구분되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간호학자들 사이에서 간호의 본질로서 합의를 본 돌봄이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도덕적 성격에 대한 탐구를 함으로써 간호윤리는 간호행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윤리적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호행위가 지니는 고유한 도덕적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간호에 있어서의 돌봄의 특성은 어떤 보편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당위적으로 판단되어, 합리적 합의에 의해 수행되는 것에 있지 않다. 돌봄은 오히려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투고일 2001년 11월 6일 심사의뢰일 2002년 3월 18일 심사완료일 2002년 6월 10일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타자와의 상호 교호적인 관계형성을 기초로 하여 개별적인 의사소통과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돌봄은 인간관계 윤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특성과 그리고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돌봄의 고유한 특성은 타자와의 감정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간호의 도덕적 목적을 성취하는 예술이라는 특성 속에 있다. 간호윤리는 바로 도덕적이며 미감적(aesthetic)인 특성을 지닌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성취시키기 위한 돌봄의 윤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에 있어서의 돌봄의 윤리는 예술로서의 돌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덕(virtue)을 갖춘 성품과 관계의 윤리를 필요로 한다. 즉 간호의 특성에 맞게 요구되는 윤리는 바로 예술로서의 돌봄의 행위를 위한 간호사의 자질로서의 성품(character-trait)의 윤리와 미감적(aesthetic) 특성을 지닌 인간관계의 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간호에서의 돌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료윤리와 구분되는 간호윤리의 고유한 특성을 탐색하여 보고, 간호행위의 목적과 특성에 합당한 돌봄의 윤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은 간호의 목적과 특성에 합당한 돌봄의 윤리에 대한 방향을 예술로서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성품의 윤리와 미감적 특성을 지닌 관계의 윤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간호사와 대상자와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돌봄의 도덕적 특성을 간호이론가들의 이론을 통해 고찰하여 보고, 돌봄의 도덕적- 미감적 특성에 합당한 윤리적 패러다임을 바움가르텐의 미학사상과 체러의 미적 성품론, 그리고 칸트의 미적 판단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감적인 관계의 윤리를 통해 모색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 논문에서 전개될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최근 10여 년간의 간호이론가들에 탐구된 돌봄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2. 예술로서의 간호행위가 지닌 돌봄의 도덕적 성격에 대해 탐구한다.
3. 돌봄의 특성에 적합한 윤리적 패러다임을 바움가르텐의 미학사상과 체러의 미적 성품론, 칸트의 미감적 판단론을 통해서 고찰한다.

II. 본 론

1. 간호의 핵심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돌봄의 개념과 의미

care, caring은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2가지 의미로 분류되고 있다; 즉 “care for...를 돌보다”라는 의미처럼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지하는 활동이나, 혹은 “care about ...를 염려하다”처럼 진지한 정서를 지닌 주의, 마음의 책임을 포함하는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의 주관적 태도, 감정,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Nancy, 1991). J. Mose(1990)는 최근 10년간의 간호이론가 들에 탐구된 돌봄의 개념을 4가지 범주를 통해 분류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으로서의 돌봄과 2)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돌봄, 3) 정서상태로서의 돌봄과 4) 대인 관계로서의 돌봄, 5) 간호중재로서의 돌봄이다. 이러한 돌봄의 4가지 범주가 합쳐하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돌봄은 인간의 고유한 존재론적 특성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잠재하고 있는 인간 현존재의 양식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인간 누구나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돌봄의 존재론적 특성이 바로 간호행위의 원동력이 된다. Benner, Wrubel(1987)에 따르면 모든 간호실천은 바로 인간현존재를 특징짓는 “세계 내 존재방식”으로서 돌봄으로부터 유래한다. 인간의 돌봄에 대한 경험은 환자의 다양한 삶의 차원에서 건강과 불 건강의 의미를 이해하는 간호실천의 행위에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돌봄은 “세계 내”에 깊숙이 참여하여 주체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존재양식인 것이다. 또한 간호학자들은 돌봄을 간호에서의 도덕적 명령과 이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Watson(1988)에 따르면 돌봄은 간호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증진시키는 도덕적 이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돌봄은 간호하는 간호사의 자질, 성격적 특성으로서 공감 능력, 부드러움 지지능력을 통해서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획득되어질 간호의 이상인 것이다. 그리고 간호학자들은 돌봄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정서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특히 환자의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감정의 개입으로서 공감이나 연민 등을 일컫는다. 여기서 돌봄은 간호행위를 촉진시키는 관심과 헌신, 그리고 사심 없는 정서의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감정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돌봄은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 교호적이며 지지하는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돌봄은 공감, 동정, 친밀성, 비소유적인 이타적 감정과 행위 등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돌봄의 내용은 많은 간호학자들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중재의 활동으로서 설명되어진다. 돌봄의 활동은 주의 깊은 경

2002년 6월

청, 환자교육, 환자 지지, 접촉, 함께 하기 등의 전문적 기술, 능력으로서 특수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환자를 조력하는 모든 가능한 간호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Mose(1990)에 의해 범주화된 돌봄의 내용을 요약해 봄으로써 간호학자들이 어떻게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간호의 본질로서 규정된 돌봄의 4가지 범주들은 서로 차별된 내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연관성을 지닌 통합된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은 인간의 선천적 자질이며, 공감, 감정이입, 고통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민감성 등의 정서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근원적 존재방식인 것이다. 또한 돌봄은 이러한 정서적 능력의 계발을 기초로 한 타자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획득되는 전문적인 간호 행위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돌봄은 간호의 근본적인 가치이며 이상으로서 인간성을 보호, 증진시키는 도덕적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Knowlden(1991)은 전문적 간호인의 돌봄을 내용과 관계의 측면으로 분류한다. “보건교육, 건강사정, 신체적 간호”가 돌봄의 내용의 측면에 속하며, 환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관심을 보이고, 발전과 희망을 확대하는 것, 경청, 자존감의 형성, 접촉”이 돌봄의 관계의 측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서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미 대상자와의 정서적 관계형성을 통해서만이 전문적인 내용을 지닌 간호행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는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하는 돌봄은 어떠한 이성적 합의에 의한 규정적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과 정서적 능력이 계발되었을 때 상호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의 윤리는 돌보는 자의 자질과 성품의 계발을 위한 덕 윤리와 관계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탐구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유지, 증진시키는 목적을 지니는 간호에서의 돌봄은 타자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정서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간호이론에서의 예술로서의 돌봄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돌봄은 바로 돌보는 자의 성품과 관련된 정서적 능력과, 인간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도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돌봄이 지난 고유한 도덕적 특성은 ‘돌봄은 예술이다’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 행위로서의 돌봄이 예술이라는 주장은 이미 Chinn과 Krammer(1995), 그리고 Watson(1988)의 저서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Caper(1978)의 간호지식의 4가지 유형에 대한 모델에 따라서 Chinn과 Krammer(1995)는 경험적 지식, 도덕적 지식, 인격적 지식과 함께 미감적 지식이 간호학적 지식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감적 지식은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행위, 태도, 품행들을 통해 표현되며, 이것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직관 상상력이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환자에 대한 감성적 경험은 인지적인 재현이나 설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직관력에 의해 상황을 통찰하는 것이며, 이것은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출현시킨다. 간호사의 예술로서의 돌봄의 행위는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 깊이 참여하여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는 숙련성을 요구한다.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만성통증의 경험을 상상하고 그 의미를 직관하는 과정, 이에 대한 표현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과정을 내포하고 있다(Kong, 1999).

왓슨(1988)은 자신의 저서 “간호: 인간과학과 인간간호”에서 초개인적 돌봄이 어떻게 예술로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간호에서의 예술의 활동은 한 개인의 듣거나, 보거나, 혹은 직관, 상상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간호사는 다른 인격체의 감정을 읽어내서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타인과의 공감능력은 돌봄이라는 예술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행위는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상호 주관적 관계 속에서 일깨워진 감정을 행동, 접촉, 소리 그리고 언어 등의 수단을 통해 전달하며, 이것이 바로 예술로서의 간호의 활동이다. 돌봄이라는 예술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대인관계의 상황 속에 참여시켜 감정을 전달하고 드러나게 하며, 간호대상자에게 더욱 수준 높은 자아에 대한 감각과 정신, 신체, 영혼의 조화를 향해 활동한다. 예술로서의 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몸, 마음, 영혼의 조화상태로 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증진시켜주는 데 있다. 왓슨에게서 이러한 돌봄의 행위는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다.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감정을 지각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대상자와의 상호 교호적 관계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돌보는 자

는 이러한 예술로서 둘봄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도덕적 감수성과 감성적 능력에 대한 자질의 계발이 요구되는 것이다(Kong, 199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로서의 둘봄의 행위가 지향하는 궁극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도덕적 이념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건강, 즉 몸, 마음, 영혼의 조화 상태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호의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되는 예술로서의 둘봄에 대한 윤리적 입장은 철학적 미학에서 전개된 미학이론을 통해 미감적, 윤리적 패러다임 내에서 재조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 미학 이론에서의 인간의 선천적 자질로서의 감성적 능력

그러면 미학이론을 통해 둘봄의 윤리가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는가? 둘봄의 윤리는 인간의 감성적 능력과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한 예술로서의 둘봄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탐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둘봄에 대한 미학적 탐구는 예술행위를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감성적 능력의 계발을 통해 둘보는자의 성품이 계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그러면 우선 미학사에서 전개된 주된 미학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예술로서 둘봄의 윤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예술 중에서도 특히 비극의 효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비극은 연민과 동정이라는 감정이 입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 도덕적 감정으로 순화 혹은 억눌려 있던 감정이 표현됨으로써 카타르시스라는 치유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예술적 행위는 인간 본성과 행위에 대한 발견적 인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감정의 계발과 치유효과를 지닌다(Cho, 1983). 이러한 예술의 효과는 마치 간호에서의 둘봄의 행위가 대상자와의 공감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적 인식과 더불어 도덕적 감정과 자기치유감정을 갖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경험론자들, 특히 허치슨과 흄은 대상에 대한 외적인 지각에 대해서 내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내감(inner sense)인 섬세한 취미(taste)에 대한 이론을 전개시켰다(Siefert, 1995). 내감은 도덕적 감정과 유사한 능력으로서 감정을 통해서 사물을 예민하게 판별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능력이다. Hume에 따르면 이러한 섬세한 취미는 사고의 명석성, 판별의 정확

성, 발견한 지각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감정을 통해 개별적 대상을 식별하고, 예민하게 사물의 특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인 것이다(Kim, H. R. & Kim, H. S., 1997).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대해서 지각하고 판별하여 반응하기 위한 예민한 내감을 지녀야 할 것이며,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자질을 숙련시키는 것이 둘봄을 위한 기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독일에서 미학이란 학문을 성립시킨 바움가르텐(1758)은 체계적인 감성적 인식능력과 감성적 인식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인 탐구를 하였다. 그는 감성적 인식능력을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추리를 하고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는 이성에 의한 능력과 동등한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따라서 그에게서 이를 다음과 예술의 창조는 이러한 감성적 인식능력이 완전하고 조화롭게 계발된 상태에서 가능하며, 인간은 이를 통해 미적인 성품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 독자적인 감성적 인식능력을 무엇이며, 어떠한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가? 그리고 감성적 인식능력에 의해 도달되는 감성적 진리는 무엇인가?

바움가르텐은 인간의 선천적인 자연적 기질로서의 이러한 감성적 인식능력의 충체성을 유사이성이라고 칭한다. 유사이성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들이 있다:

- 1) 주의력(Ingenium)은 사물의 유사성, 즉 다르게 보이는 사물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감성적 능력이며, 외적 감관의 작용에 의한 지각활동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예리한 정신적, 영혼의 변화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다.
- 2) 예민성(acum)은 사물들 사이의 차별성을 예민하게 지각하여 내감에 의해 반응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예민한 감수성을 의미한다.
- 3) 기억력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일련의 표상들을 재인식하는 능력이다.
- 4) 예지력은 일련의 표상 군이 지닌 법칙성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다.
- 5) 기호능력은 대상과의 일치를 표현하는 능력이다.
- 6) 감성적인 판단능력은 감정(감응)을 통해 사물들에 대한 조화, 부조화를 예리하게 판별하는 능력이다.
- 7) 시적인 창조적 상상력은 기억력과 주의력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형태, 즉 이미지를 상상해 내는 능력이다(Kong, 1999).

미학은 이러한 감성적 능력에 의한 인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인간의 마음의 능력들을 조화롭게 계발하기 위한 전인적 교양을 위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미학의 진정한 목적은 자연적 기질인 예민한 감응능력과 감성적 판단력을 계발시켜 미적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에 있다.(Siefert, 1995)

이렇듯 바움가르텐이 체계적으로 분석한 감성적 능력은 특히 돌보는 자의 미적 성품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돌보는 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요구들을 감성적 능력, 특히 주의력, 상상력, 판단력을 통해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그려내며 예전할 수 있으며, 이를 언어와 태도, 행위를 통해 돌보는 행위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대상자가 처한 개별적인 삶의 진리를 인식하고 언어와 행위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감성적 능력과 이에 대한 계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바움가르텐의 미학은 돌보는 자의 미적 성품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4. 쥘러 미학에서 미적 성품론

쥘러에게서의 미학의 핵심주제는 인간의 미적 교육이며, 그것의 목적은 인간의 미적 성품을 계발을 하여 조화로운 충체적인 인성을 회복하자는 데에 있다. 그에게서 미적인 성품은 인간의 감성적 충동과 이성충동이 조화롭게 만나 일어나는 상상력에 의한 유희충동(Spieltrieb)의 계발에 의해 형성된다(Schiller, 1995). 쥘러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적 기술적 이성의 일방적인 지적인 계발은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런 감성을 억압하고 이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쥘러는 오히려 인간의 개성과 구체적이며 생생한 삶의 체험을 억압하는 기술적 이성의 일방적인 계발은 자아의 내적인 소외는 물론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모순을 낳게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고, 인간의 미적 교육론을 기술적 문명이 파괴한 인간 본성의 충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Park, 1992).

쥘러는 인간을 추상적인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머무는 것”으로서의 그의 “인격”(Person)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서의 그의 “상태”(Zustand)이다. 인격은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성품의 표현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이며, 자유를 본질로 한다. 또 상태는 그의 감성적 성품의 표현으로서 모든 생성의 조건인 시간에 근거한다. 인격은 항상 이성적 본성으로부터 출현하며, 상태는 인간의 감각적 본성으로부터 출현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과 감각적 상태를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은 감각적 충동에 의해 수용된 삶의 직접적인 상태를 통해서 현실화되어야 하며, 또한 변화하는 감각적 충동에 의한 삶의 현실성은 인격 속에 담아서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삶의 변화와 생동하는 상태를 지향하는 감성충동과 상태의 온갖 변화 속에서도 삶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형식충동이 있으며, 이러한 힘의 충동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하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Schiller, 1995).

쥘러에 의하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성적 충동과 형식충동을 조화, 일치시켜 충체적인 미적인 성품의 계발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두 충동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종속시키지도 않고 종속되지도 않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두 충동의 조화와 일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쥘러에 의하면 감성적 충동과 형식충동이 경험 속에서 완전히 일치, 조화된다면 인간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새로운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새로운 충동을 쥘러는 유희충동이라 부른다. 이것은 감각적 충동과 도덕적인 법칙성을 동시에 실현시키면서 두 충동 어느 하나에 의해 강제되어있는 얹는 충동이다. 이러한 유희 충동의 대상은 아름다움이다. 감성적 충동의 대상이 일종의 변화하는 생명이며, 형식충동의 대상이 인간의 사고능력에 의한 원칙이라고 한다면, 유희 충동은 “살아있는 형태”, 즉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쥘러에게서 미적 행위는 인간의 감각적 성품과 도덕적, 이성적 성품을 일치 조화한 성품의 충체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참된 인간성의 실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은 오직 그가 그 말의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일 경우에만 유희하며, 유희할 경우에만 온전히 인간이다”(Schiller, 1995) 유희 충동은 감성적 충동과 형식충동이 조화 일치되어, 자유로운 심정의 상태를 활기시켜 미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예술로서의 미적 행위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삶 전체를 충만케 하는 최고의 자유롭고 현실성을 지닌 심적 상태를 조성한다.

따라서 인간의 유희 충동의 계발을 통하여 감성적 성품과 도덕적 성품이 자유롭게 조화된 충체적인 완전한 미적 성품이 형성될 수 있다. 유희 충동의 계발에 의한 미적인 정신으로부터 미적 행위가 나온다. 미적 행위는 인간의 자유의 실현이며, 소외된 인간 본성의 충체성을 회복시켜준다. 이러한 미적 행위로서의 예술은 인간의 자기소외를 극복하게 하고 현존하는 현실적 관계에 의해 억압된 의지의 자율성과 자유와 이성에 대한 통찰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 유희 충동에 의한 자유로운 예술행위는 스스로 소외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을 위한 희망에 대한 상을 제시해 준다(Schiller, 1995).

쥘러의 유희충동의 계발에 의한 미적 성품은 특히 돌보는 자의 이상적인 성품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간호

사 자신의 조화로운 미적인 성품 속에서 나온 간호행위는 간호대상자에게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체험하게 한다. 왜냐하면 예술은 인간의 자율성을 실현시키는 행위이며, 간호사의 미적 성품으로부터 나온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는 간호대상자에게 소외되고 분열된 자아를 조화롭게 통합시켜주며 의지의 자율성과 삶의 생동감을 동시에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간호행위는 이성에 의한 도덕적 원칙과 생생한 삶을 감지해 내는 감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심적 상태로부터 나온 자율적 행위이다. 돌보는 자는 감성적 충동에 의해 대상자의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접촉하고 감지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도덕적, 인격적 가치 속에서 내면화하여 행위로서 표현한다. 자신의 내면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도덕 원리라도 구체적인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 자율적으로 표현되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원리에 불과할 것이다. 예술로서의 진정한 돌봄의 행위는 구체적인 각각의 개별적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이나 규칙의 지침에 따르는 기술 실천적 행위가 아니라, 간호사 고유의 대상자에 대한 감성적 체험과 이에 대한 내면적 반성을 통해 개성적 표현되는 자율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미적 행위는 대상자에게 자율성과 자아에 대한 반성능력을 일깨우게 하여준다. 따라서 생생한 구체적인 삶을 감지해 내는 감성적 능력과 이를 반성하는 이성능력의 조화를 통해 일어나는 유희 충동의 계발은 돌봄을 위한 간호사의 가장 이상적인 미적 성품을 위한 필연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예술로서의 돌봄의 과정은 분열된 자아라는 자기 소외의 상태로부터 통합된 자아라는 자기소외의 극복에서 나아가게 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간호사의 조화로운 미적 성품으로부터 나온 돌봄의 행위는 환자에게 진정한 자율성의 회복과 자아통합이라는 치유감정을 일깨워져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철학의 미적 교육론을 통해 살펴본 미적 성품론은 예술로서의 돌봄을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 간호사들의 미적 성품을 위한 윤리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칸트 미학에서 미감적-윤리적 (aesthetical-ethical) 패러다임

1) 미감적 태도와 공통감

칸트 미학의 핵심적 주제는 사물에 대한 과학적 인식 태도와 실용적 관심에 의한 실천적 태도와 구분되는 미감적인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칸트는 미를 느끼는 선천적 능력을 미감적인 반성적 판단력, 즉

“감정을 통해 대상을 반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Kant, 1974) 미감적인 반성적 판단력은 어떤 대상을 개념에 의한 논리적 추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도덕적 이념을 향해 확장된 인간의 상상력과 사고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한 일어나는 반성적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반성적 감정에 의한 미감적 판단은 보편적 개념에 의해 서술되거나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인식이 될 수 없다. 미감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적 욕구나 관심 그리고 그 대상의 유용성에 대한 실용적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미적 태도에서 비롯된다(Kong, 1999).

칸트는 대상에 대한 미감적 태도를 “무관심적 만족감”이라는 감정상태를 통해 설명한다. 이 감정은 모든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단지 대상과의 자유로운 호의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즉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감각적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관심도, 삶의 유용성을 위해 일어나는 실용적 관심이 배제된 채, 단지 자유롭게 선호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러한 대상과의 호의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서로의 생명감을 촉진시켜주는 사랑스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감적 판단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미감적 판단은 인간의 상상력과 사고의 자유로운 유희활동에 의해 일어나며, 인간 상호간에 보편적인 동의와 전달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미감적 판단하는 능력, 즉 공통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감은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도덕적 이념을 받아들이는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공통감은 자신이 지닌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인간성을 향해 사유의 지평을 넓히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견지에서 자신을 반성해 보는 상상력에 의한 확장된 자율적 사유방식에 속한다.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도덕적 이념은 다름 아닌 인간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이다. 이러한 공통감은 대상에 대한 과학적 사고에 의한 판단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력에 자유로운 반성적 활동을 통해 일어난 감정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Kong, 1999).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감적 판단력은 감정을 통해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공통감(sensus communis)이다. 따라서 미감적 판단력에 의한 의사소통은 오로지 보편적인 인간성의 이념을 향해 반성하는 상상력과 사고의 자유로운 유희능력의 계발과정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 것이다(Kant, 1974). 특히 Arendt (1982)는 자신의 저서 “칸트 정치철학강의”(Lectures Kants Political Philosophy)에서 칸트의 미학이론을 의사소통의 사회영역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녀는 취미를 개인의 상상력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에서의 정서적인 공감에 근거한 인간상호간의 의사소통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태도는 보편적인 인간성을 수용하는 도덕적 감정에 기초하여 누구에게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Arendt, 1982).

위에서 설명된 미적인 감정에 기초한 미감적인 태도는 돌봄의 관계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돌보는 자는 어떠한 이기적이며, 실용적인 관심을 배제한 채, 자유로운 호의적 관계 속에서 돌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돌보는 자가 보편적인 인간성의 이념을 향해 확장되는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공감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미감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미감적인 관계는 보편적인 인류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 의해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돌봄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대상자 간의 미감적인 관계형성은 인간 누구나 고유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인간성에 대한 이념을 받아들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상호 교류할 수 공통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의 자질로서의 공통감에 대한 계발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감정을 인간 상호간에의 교류를 통해 서로 느끼고 전달함으로써 돌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2) 숭고한 감정과 도덕적 주체성

칸트는 미감적 판단에서 대상과의 자유로운 호의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미적 감정뿐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반감을 극복함으로써 일어나는 숭고한 감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대상과의 공감에 의한 순수한 미적인 감정(a feeling of the beauty)은 대상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생긴다 (Kong, 1999). 숭고의 감정(a feeling of the sublime)은 대상과의 모순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반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고양, 자기 긍지의 감정이다. 즉 인간의 마음에 호의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다. 그러한 대상을 대할 때에 우리마음에서 생명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의 유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대상에 대한 감성적 거부가 일어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성적 한계에 부딪혀

서 그 대상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도덕적으로 계발이 된 사람은 자신의 감성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는 그 대상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라는 역동적으로 마음의 동요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지만,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다. 즉 자신이 지닌 감성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내부로 향해 도덕적 이념들을 일깨우는 자아에 대한 반성적 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숭고한 감정이 일어난다. 칸트는 숭고의 감정이 그 대상을 존중하는 감정이라고 한다(Kant, 1974). 숭고의 감정은 자신과 조화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도덕적으로 반성하여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긍지감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타자를 존중하는 감정인 것이다. 숭고의 감정을 체험하는 인간은 타자와의 차이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 갈등과 대립의 해소를 자신에 대한 도덕적 반성 속에서 발견하는 인간인 것이다. 인간은 인간상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자와의 차이를 통한 긴장과 갈등, 좌절과 고통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와 도덕적 주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타자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Kong, 1999).

특히 간호사는 직접적인 호감을 느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과 자주 직면한다. 특히 고통과 상실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대할 때, 간호사는 그들에게서 직접적인 생명감과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간호사가 환자와의 감성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도덕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다. 이때 자신의 내부 속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도덕적 이념을 일깨워 자신의 긍지를 되찾고 환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때 숭고한 감정이 일어난다. 따라서 숭고한 감정을 통한 대상과의 관계는 이를 대하는 주관의 더욱 더 높은 정신적 도덕적 능력의 수양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순수한 미적 감정은 직접적인 공감에 기초하여 생명감이 고양되는 감정인 반면에, 숭고한 감정은 대상에 대한 반감에 의해 생명감이 저지되었다가 감성적인 자기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생기는 도덕적인 고양감인 것이다. 숭고의 감정은 대상과의 반성적 거리를 줄여면서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일어나는 도덕적인 가치 감정이다.

궁극적으로 순수한 미적인 감정이나, 숭고의 감정은 모두 도덕적 이념에 기초하여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순수한 미적 감정이나 숭고한 감정은 주관적이지만, 사적인 감정이 아니며, 상호 주관적으로

보편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적 감정과 숭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미감적 능력은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감수성이 계발되었을 때 발휘될 수 있다. 특히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숭고의 감정을 느끼는 간호사는 어떠한 외부의 고통과 역경에도 흔들림 없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타자를 존중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돌봄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I. 결 론

지금까지 간호의 본질로서 규정되는 돌봄이 지닌 도덕적, 미감적 성격을 탐구하여 봄으로써, 예술로서의 간호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돌봄의 윤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모색하여 보았다. 간호윤리는 타자에 대한 도덕적, 미감적 감수성과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예술로서의 돌봄의 윤리를 필요로 한다. 간호에서의 이러한 돌봄의 윤리는 예술로서의 돌봄의 행위를 위한 간호사의 자질과 관계한 성품의 윤리와 그리고 상호 교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관계의 윤리를 필요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돌봄이 합축하고 있는 도덕적, 미감적 성격에 합당한 간호 윤리의 틀을 인간의 감성적 인식론, 철학의 미적 성품, 칸트의 미학이론을 통해 제시하여 보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돌봄이 간호행위의 모범이라는 의미에서의 도덕적 이상이며, 동시에 간호사의 미적인 품성과 자질에 대한 계발로부터 성취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예술임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바움가르텐의 미학이론에 기초한 감성적 인식능력이라는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계발은 간호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예민하게 감응하여 판단하고 직관하고 상상하여 그의 요구에 합당한 창조적이며 개성적인 간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철학의 미적 교육론을 간호사의 미적인 성품론에 적용시켜본다면, 간호사의 조화로운 미적 성품으로부터 나온 간호행위는 간호대상자에게 자율성과 삶의 생동감을 증진시켜주는 예술로서의 치유적 영향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칸트의 미학에서 전개된 인간의 미감적 판단 능력을 간호사가 보편적인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념에 기초하여 타자와의 미감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임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미와 숭고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미감적 판단능력을 바로 보편적인 인간성을 수용하는 도덕적 감수성에 기초하여 대상자와의 상호 주관적인 정서적 관계와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하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서 아름다움과 숭고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는 돌봄의 관계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간호행위의 도덕적 특성과 목적에 합당한 돌봄의 윤리적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간호에서의 돌봄의 도덕적이며 미감적 특성에 합당한 이론적 틀을 철학적 미학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돌봄의 윤리에 적용시켜보았다. 특히 위에서 논거 된 바움가르텐, 철학, 그리고 칸트의 미학에서 발견된 이론적 틀은 간호에서의 돌봄이 지닌 도덕적이며 미감적 성격을 규명하고 예술로서 간호행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간호에서의 돌봄의 도덕적 지평을 철학적 미학과 접목시켜 봄으로서 의료윤리와 구분되는 간호윤리의 방향을 돌봄의 미감적 -윤리적 패러다임을 통해 제시해 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Baumgarten, A. G. (1983). *Theoretische Ästhetik Die Grundlegende Abschnitte aus der "Aesthetica" (1750/1758)*. Hamburg: Philosophische Bibliothek.
- Benner, P., & Wrubel, J. (1989). *The Primacy of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Menlo Park: Addison-Wesley.
- Caper, B. L. (1978). Fundamental pattern of Knowing in nursing. *Adv Nurs Sci*, 1(1), 13-18.
- Chinn, P. L., Kramer, M. K. (1995). *Theory and Nursing Theory and Nursing*. St. Louis: Mosby-Year Book.
- Cho, Y. H. (1983). *Philosophy of art*. Seoul: Keongmunsa.
- Kant, I. (1974). *Kritik der Urteilskraft*. I Weischedel, W. (hrs.), Werkausgabe I. Kant(V). Frankfurt am Main: Suhrkamp.
- Kim, H. R., & Kim, H. S. (1997). *Art and thought*. Seoul: Ewha Women University.
- Knowlden, V. (1991). Nurse caring as constructed knowledge and nursing. M. Neil

- &R Watt (Eds.), *Explorations in Feminist Perspectives* (pp.201-208).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 Kong, B. H. (1997). Die Bedeutung von Geschmack und Kunst in Kants Ästhetik. *Kant Studien*, 3, 275-320.
- Kong, B. H. (1999). Aesthetical Knowing and Nursing Action as an Art in Nursing Science. *J of Korean Acad Society of Nurs Education*, 5(2), 153-164.
- Kong, B. H. (1999).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Ulsan: UUP.
- Morse, J. M. (1990). Concepts of caring and caring as a concept. *Adv Nurs Sci*, 13(1), 1-14.
- Nancy, S. Jecker, & Donnie, J. (1991). Separating care and cure: an analysis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mages of nursing and medicine. *J of Medicine and Philosophy*, 16, 285-306.
- Park, J. G. (1992). Schiller's political aesthetics. *Mihak*, 17, 91-113.
- Schiller, F. (1990).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Stuttgart: Reclam.
- Siefert, G. (1995). *Einführung in die Ästhetik*.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Watson, J. (1988).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 Abstract -

Aesthetical-ethical Paradigm of Care Ethics in Nursing

Kong, Byung-Hye*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find aesthetical-ethical paradigm of care ethics by understanding the unique moral character of care as an art and to suggest the optimal direction of nursing ethics.

Method: This study used meaning-heuristic and -interpretive methods of hermeneutics based on philosophical aesthetic theory; Baumgarten's aesthetics, Schiller's theory of aesthetical education and Kant's theory of aesthetical judgement.

Result: The concept of care implied aesthetical and ethical character; caring as an art was related to moral feeling based on human dignity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relationship. Caring as an art was interpreted as a moral ideal for the promotion of the humanity and the interaction in personal-relationship according to nursing theories. Philosophical aesthetics could provide the theoretical base for the interpretation of caring as an art. The proper paradigm of care ethics in nursing could be found in character-trait ethics and communication ethics according to the philosophical aesthetics.

Conclusion: This study could show aesthetical-ethical paradigm of care ethics in nursing by the heuristic interpretation of caring as an art according to the philosophical aesthetics.

Key words : Care ethics, Nursing ethics, Aesthetics

* Full 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